

# 국경(國境) 안과 밖의 여성들

## —‘K-’의 곤경과 한국의 가족주의

강지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목차

- 1 분절화되는 ‘K-’, 다인종사회의 한국
- 2 결혼이주 서사, 한국 가족주의의 거울
  - 2.1 책임공동체로서의 가족의 결핍과 결혼이주 여성이라는 희생양
  - 2.2 우아한 괴물과 순박한 괴물: 한국 가족주의의 그림자
  - 2.3 비대칭의 사랑, 그리고 남겨진 이방의 언어
- 3 내부 식민자로서의 한국 여성의 재현과 ‘K-가족주의’
- 4 마치며

이 논문은 남경대·연변대 주최 〈경계/접촉지대와 장소의 탄생: 중국의 한국문학 연구 30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글은 2000년대 중후반에 나타난 결혼이주 서사들과 201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 리부트’를 대표하는 『82년생 김지영』을 같이 읽으며 이 두 가지 여성서사들이 한국의 외부와 연결되고 있는 다른 양상이 보여주는 변화를 신자유주의와 함께 작동해온 한국 가족주의에 내포된 문제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독해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중후반 다수 창작된 결혼이주 서사들은 1990년대부터 확대되어온 여성서사를 이어받아 한국 사회의 결혼이주 여성들의 현실을 조명한 작품들로 이해된다. 이 시기 결혼이주 서사들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관찰되는 이주의 젠더화 현상 속에서 여성의 돌봄노동이 저개발 국가 출신의 여성에게 이월되는 현상을 한국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은폐하는 기제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201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 리부트’를 주도했던 여성서사인 『82년생 김지영』이 결혼이주 서사가 축소된 자리에 한국사회의 ‘내부 식민자’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재등장시키면서 페미니즘의 동아시아적 확대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이 글은 201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의 글로벌한 확대를 가져온 『82년생 김지영』이 앞선 시기의 결혼이주 서사가 맥락화했던 여성-인종-계급 문제를 결락하고 있는 역설에 주목할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문핵심어: 결혼이주서사, 다문화, 『잘 가라, 서커스』, 『사랑을 묻다』, 「쁘이이거나 쓰이이거나」,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 ‘페미니즘 리부트’, 『82년생 김지영』, 한국 가족주의

### 1 분절화되는 ‘K-’, 다인종사회의 한국

최근 수년간 ‘K-’라는 접두어가 ‘한류(韓流)’라는 단어를 재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아시아를 무대로 퍼져나간 한국 대중문화 유행 현상을 지칭했던 한자어 ‘한류(韓流)’가 영어 알파벳 ‘K’를 붙인 조어(造語)들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북미와 유럽으로까지 확대된 한국문화의 영향력을 지시하는 중이다. K-팝,

K-드라마, K-시네마, K-뷰티, K-푸드 등 K-대중문화 상품들이 주류였던 목록들에 급기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K-방역이 추가되었다. 얼마 전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BTS를 문화특사로 임명해 동행했다. ‘K-컬처’는 이른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가리키는 대표 명사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한국 대중문화 상품이 국경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해외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인종적인 사회 구성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는 차후 한국사회의 지향을 드러내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이중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미디어의 단골 소재로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 중임으로 드러내는 동안,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의 기존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다수는 비가시성의 영역 속으로 분할/분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이중 구조를 가로지르는 명백한 인종서열화다. 한국 거주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자본의 불가피한 이동을 따라 한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지탱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이지만, 미디어에서 한국의 ‘글로벌(global)’한 사회 구성을 대표하는 것은 ‘도시(서울)-전문직노동자-백인’ 결합체—‘지방-저임금노동자-비(非)백인’ 결합체의 반대편에 있는—이다. 최근 한국 노동문제의 재구성을 진단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의 의미에는 바로 그 ‘위험’이 미숙련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에게로 이월(移越)되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2000년대를 전후로 한국문학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주자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주로 국경을 경계로 발생하는 자본의 격차를 발판으로 삼아 이주를 감행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불안정성과 취약성에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개인의 삶은 문학의 축수가 감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월경(越境)의 서사가 젠더화되는 성격을 띠기도 했다는 점이다.<sup>1</sup> 말하자면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이주 서사가 비슷한 시기에

---

1 결혼이주 서사는 아니지만 이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여성 월경 서사로서 강영숙의 『리나』(2006)와 황석영의 『심청』(2003), 『바리데기』(2007) 등도 당시 월경 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젠더적 성격을 반영한다.

다수 출현하면서 이주자 서사의 핵심적 국면을 담당하게 된다.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2005), 공선옥, 『가리봉 연가』(2005), 한수영의 「그녀의 나무 핑귀리」(2006), 정도상의 『짚레꽃』(2008), 송은일 『사랑의 묻다』(2008), 서성란의 「파프리카」(2009), 김애란의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2009), 백가흠의 「뽀이 이거나 쓰이거나」(2010) 등이 2000년대 중후반 결혼이주 여성들의 굴곡진 생애를 서사화했다.

한국문학 연구자들 역시 특정한 시기 반복해서 등장했던 결혼이주 서사에 주목했다. 2000년대 그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의 재현 양상을 관찰, 분류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기존 연구들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처한 젠더적 억압의 재현을 서술하고<sup>2</sup>, 소수자 재현 양상의 타자화를 지적해내거나<sup>3</sup>, 결혼이주 여성들이 겪는 억압 구조 자체의 문학적 반영<sup>4</sup>에 주목했다.

여성 섹슈얼리티의 공공연한 자본 거래라는 현실은 인신 구속적인 성격을 지닌 노골적인 젠더 위계를 전제하고 있다. 결혼과 국적 획득이 손쉽게 결합되는

- 2 이미림, 「2000년대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 이주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제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이경재, 「결혼이주여성 제재 소설의 문화변용 양상에 따른 유형 분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6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엄미옥, 「현대소설에 나타난 이주여성의 재현 양상」,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재현 양상」,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1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기술훈원, 2011; 송명희, 「다문화 소설 속에 재현된 결혼이주 여성—공선옥의 『가리봉 연가』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25권,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1; 심영의, 「다문화소설의 유목적 주제성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2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3 등
- 3 박정애, 「2000년대 한국소설에서 다문화 가족의 성별적 재현 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서성란, 「한국 현대소설에 형상화된 결혼이주 여성」, 『한국문예창작』 제12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3 등
- 4 배옥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장소 정체성 상실: 공선옥의 〈가리봉 연가〉를 중심으로」, 『젠더와문화』 제6권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3; 연남경, 「여성 이주 소설의 기호학적 분석—결혼이주여성 인물과 공간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40권, 한국기호학회, 2014; 임지연, 「결혼이주 여성의 몸과 교차적 정치성」, 『겨레어문학』 제62권, 겨레어문학회, 2019; 장미영, 「디아스포라문학과 트랜스내셔널리즘 (1)」, 『비평문학』 제38권, 한국비평문학회, 2010 등

것에 비례해 월경하는 이주 여성에게 인종과 젠더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억압구조는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혼이주 서사는 국적 변경의 반대급부로서 폭력적으로 부과될 사회의 모순을 겪는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만은 아니다. 결혼이주 문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구성이 가진 핵심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 문제는 국경 넘기를 시도하는 이주자 개인이 이성애 가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한국 국경 안으로의 수용이 가능해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식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결혼이주 서사가 외국인 이주자 서사의 대표적 모델이 된 것은 그것이 한국의 이주자 수용의 문제성을 압축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저임금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귀화와 국적 취득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반면, 국제결혼을 통한 국적 획득은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 한국에 오고자 하는 이주자들에게 결혼은 가장 안정적인 국경 넘기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결혼이주의 서사는 ‘국경 넘기’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개인을 국가가 규정하는 방식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자각하도록 한다. 결혼이주 서사는 새로운 사회적 소수자의 서사인 한편,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모순을 관통하는 서사이기도 하다.

접두어 ‘K-’는 목록들을 증식시키는 합성어 체계를 만든다. K-팝, K-드라마, K-시네마, K-뷰티, K-푸드 등은 한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을 매개한다. 다르게 말해 한국은 ‘K-’ 합성어의 언어 수행을 통해 K-팝, K-드라마, K-시네마, K-뷰티, K-푸드 등으로 분절된다. 저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들은 기존 ‘한국사회의 무엇’이라고 불리던 것을 대리한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K-드라마와 K-팝의 이미지를 매개로 한국으로의 결혼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을 채운다. 그러나 결혼이주 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K-’ 계열체가 담을 수 없는, 혹은 ‘K-’ 계열체가 은폐하는 ‘K’의 곤경이다.

이 글은 대체로 2000년대 등장한 결혼이주 서사를 자본에 의한 여성 섹슈얼리티의 번역이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의 가족주의라는 ‘‘K’의 곤경’을 되비추고 있는 서사로 읽어보길 제안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2000년대의 결혼이주 서사가 다수 등장했다가 서서히 줄어든 시점에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여성을 한국 사회의 ‘내부 식민자’로서 재등장시키고 있는 『82년생 김지영』이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사실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한국 가족주의가

드러낸 또 하나의 뒤틀림을 읽어볼 수 있는 매개로 삼는 것도 의미있어 보인다. 2010년대 중반 등장한 『82년생 김지영』은 과거 결혼이주 서사가 젠더-계급-인종 문제를 포착해내고자 했던 맥락이 탈각되어 있는 텍스트이면서 동시에 한국 문학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준 텍스트이기도 하다. 결혼이주 서사와 『82년생 김지영』을 한국문학이 한국사회의 외부와 연결되는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드러내는 텍스트들로 서로 참조해봄으로써 ‘K-’ 합성어의 증식 체계가 덮고 있는 문제성을 보다 더 예각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혼이주 서사 중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 송은일의 『사랑을 묻다』, 백가흠의 「쁘이이거나 쓰이이거나」, 김애란의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 같은 작품들은 한국의 가족주의와 자본의 힘이 결합하는 양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이와 반대로 ‘페미니즘 리부트’를 대표하는 『82년생 김지영』은 한국의 가부장제를 글로벌한 자본주의 질서에서 상향 조정된 위상이 초래할 법한 사회적 변화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면역된 공고한 젠더 체제로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은 일본과 중국으로 국경을 넘으며 페미니즘의 대중적 확산을 유도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 글은 2000년대 중후반의 결혼이주서사와 2010년대 중후반에 나타난 『82년생 김지영』 현상의 주목할만한 교차 지점을 읽어내면서 이 시기 한국 사회의 젠더 문제를 재맥락화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을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 2 결혼이주 서사, 한국 가족주의의 거울

### 2.1 책임공동체로서의 가족의 결핍과 결혼이주 여성이라는 희생양

2005년에 쓰인 천운영의 『잘가라, 서커스』는 결혼이주 서사를 대표하는 초기 작품 중 하나다. 조선족 출신 립해화는 결혼이주로 한국에 정착했다가 가출 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성매매의 위협에 노출되었다가 유산과 마약중독으로 몸을 해친 채 극빈층에 이른다. 당연히 작가가 의도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이방인의 기구한 사연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다. 소설이 겨냥하는 것은 이렇게 정형화된 기삿거리처럼 요약되는 사연의 재해석이다. 해화는 단순히 돈에 팔려온 희생자가 아니며 해화의 남편과 그의 가족들 역시 외국인 여성을 노예화하고자 한 무자비

한 파렴치한들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사정과 현실적인 판단이 조합되어 결론지어진, 이 다소 난감한 거래는 서로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연민에서 비롯된 자발적 포용에 의해 해화와 가족 모두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는 관계맺음으로 변화해 간다.

이 소설은 한 결혼이주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다. 립해화의 한국인 남편은 어린 시절 감전 사고로 의사소통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다. 자립된 삶을 살기 어려운 남성을 대신해 어머니와 남동생이 그의 국제결혼을 성사시킨다. 해화가 성인의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한 남편과 고립되어 그의 성적 집착의 대상이 되고, 결국 가족으로부터 이탈하게 된 까닭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시동생의 중국행 때문이다. 해화는 애초에 성실한 시동생과 다정한 시어머니 때문에 한국의 가족 울타리 안에서 빠르게 자리잡는다. 그러나 결국 해화의 가족되기는 장애를 가진 아들과 형을 지켜온 책임공동체인 가족의 해체와 맞물린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아내’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비로소 ‘뒤늦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동생은 형에 대한 책임감으로 소외시켜온 자기 욕망이 형수에게로 향하고만 기이한 귀결로부터 도망쳐야 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죽음 뒤까지 아들의 후일을 준비한 모정(母情)과 가장의 역할 앞에 자기 존재를 삭제해온 동생의 책임감과 죄책감이 가족과의 분리를 감당할 수 없는 형의 유아적 공포가 폭력성의 진원(震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은폐시켜 온 것이다.

해화의 비극은 그녀가 가족이라는 책임공동체가 겪은 결핍—한 사회의 경계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에 갑자기 접합된 존재라는 사실에서 궁극적으로 비롯된다. 전형적으로 불우하고 지난한 가족사에 국외자인 그녀가 접합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자본의 무차별적인 결합력에 의한 것이다. 결혼은 한국사회에서 해화의 남편처럼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성인 남성이 형식적으로라도 독립되고 온전한 성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 된다. 그가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했던 것처럼 가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유아적 대상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족 공동체는 여전히 ‘개인’의 의미를 채우는 대체불가능한 사회적 인증 기제다. 한국이 이주민들의 국적 취득의 배타적 조건으로 ‘결혼’

을 내세우고 있는 것 역시 ‘개인-가족-국가’의 단일한 순환 관계에 대한 강박적 관념을 반영한다. 해화와 같은 결혼이주 여성의 시민권은 개인의 결핍이 가족의 결핍으로 번역되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 그 결핍의 해소 역시 결혼이라는 가족적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족 공동체의 문제와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탈맥락적인 이접(移接)에 의한 결합력이란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 여성은 자본이 연결한 가족이라는 배타적 연결고리 안에서 고립되는 존재가 되기 쉽다. 그러나 이 취약한 연결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다면 사회의 안전망 ‘그 자체로부터’ 이탈되어버릴 존재가 되기는 더욱 쉽다. 해화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분리불안이 성폭행과 신체 결박을 반복하는 상황 속에 고립되어 있다가 신분증도 없이 가출해 착취적 고용시장을 전전하다 결국 부랑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이탈되어 버린다. 결혼은 한국에서 이주민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한편 그 결과 여성 결혼이주자의 신분적 안정성은 한국인 남편에게 배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만든다. 한국사회는 이주민 개인이 노동-생산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대신 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을 시민권의 인증 기제로 삼고 있다. 월경이 포함된 가족 구성의 구체적 내용이 대부분 한국인 남성과 여성 결혼이주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와 같다. 결국 각각의 개인에게 부여된 시민권의 의미는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매개항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에 더해 자본은 가부장제의 젠더 위계를 강화한다. 국가는 이주민의 사회적 결합력을 보증하는 매개로 ‘가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결혼이주 여성을 자본에 의해 유도된 가부장제 안에 고립시킴으로써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 2.2 우아한 괴물과 순박한 괴물: 한국의 가족주의의 그림자

송은일의 『사랑의 묻다』(2008)의 주인공 최부용은 립해화처럼 지적 장애를 가진 남편과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다. 해화가 결혼이민자인 자신의 유일한 안전망인 가족으로부터 너무 쉽게 이탈되어 버렸다면 부용은 철웅성 같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고립된다. 부용은 유서 깊은 가문의 명망의 유지하고 있는 한 집안의



맡으며느리이지만, 동시에 연로한 시할머니와 뇌졸중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돌봄노동자가 된다.

국제적인 자본 흐름의 따라 이루어지는 월경 현상에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주의 여성화’가 뚜렷이 관찰된다. 이는 국제적인 노동시장에서 성별분업화된 노동의 상업화 현상이 분명해졌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가사도우미, 간병인, 성산업과 유흥업 등에서 여성노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간 임금 격차에 의한 국제적 여성 이주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이다.<sup>5</sup> 말하자면 돌봄노동이라는 비가시적 노동 양식은 국제적으로 전문직 엘리트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함께 그 성별분업적 성격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임금 격차를 따라 저임금 국가의 여성 노동자에게 이월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자국의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장려한 경우 결혼이주는—한국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기획처럼—이러한 돌봄노동자의 이주가 변형된 형태를 띠게 된다.<sup>6</sup>

그러나 사실상 결혼이주자의 돌봄노동 수혜자인 부용의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결코 노골적인 착취자가 아니다. 이들은 스스로도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성별분업화된 가사노동의 수행자였으며, 전통적인 역할의 요구는 지방의 유지를 자처하는 가문의 맡으며느리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이 공고한 혈연공동체 집단이 ‘조선족 여성’을 종손의 결혼상대자로 삼아 혈통주의적 가족 재생산을 욕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상상력을 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용의 지적 장애 남편인 남겸은 어린 시절 친구이자 남겸 집안에 대해 평생 열등의식을 가져왔던 고영라의 의도적인 접근에 의해 혼외 정사에 빠지는 한편, 부용은 남겸이 어머니에 의해 비밀리에 불임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에 의한 국제결혼에 가족 재생산 문제가 불가피하게 놓여있다고 할 때 한국의 혈통중심적 가족주의/민족주의는 결혼이주 여성의 인종 문제를 표면

---

5 김민정, 『이주 시대의 젠더』, 집문당, 2020, 35-36쪽.

6 이지영, 「국제이주와 여성」, 『4차 산업혁명론의 국제정치학: 주요국의 담론과 전략, 제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250-251쪽.

화한다. 이 때 조선족 여성은 한국의 가족주의/민족주의의 이중적인 사고 구조가 교차하는 대상이 된다. 즉 한국의 가족주의/민족주의의 이중적 관점 하에서 그녀들은 동일민족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이 이중성이 기만적인 것은 이러한 동시성이 상황 편의적으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의 위계질서 안에서 이 동시성을 재번역하자면 그녀들은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시켜줄 민족구성원이며, 동시에 전가된 돌봄노동을 떠맡은 외국인이다. 그러나 다른 조건 속에서 그녀들은 충분한 동일민족의 성원이 되지 못하거나 충분한 이방인이 되지도 못한다.

조선족의 언어는 이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영역이었다. ‘사투리’는 한국의 리얼리즘 재현 양식—한국 근대문학에서 현재는 영화로 중심축이 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사투리라는 토착적 언어의 변이형들은 ‘한국적 리얼리티’를 보증하는 핵심적 매개물로 작용해 온 것이다. 이 때 ‘연변 사투리’는 사투리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반쯤은 외국어이기도 한 언어가 된다. 이와 더불어 조선족은 이 이중화된 사투리의 담지자로서 청취가능한 이방인의 위치 놓이기도 하는 한편, 민족 계열체 스펙트럼의 맨 끝에 놓이기도 한다. 한때 파란(波瀾)에 찬 역경에 노출된 음지(陰地)의 언어로 대변되던 연변 사투리는 조선족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최근 한국의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충분히 친근한 사투리의 계열체로 편입되는 모습을 취하는 중이다.

부용의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과거 자신들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젠더 역할을 유지해줄 존재로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조선족 여성을 며느리로 데려온다.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분신(分身)이기도 한 며느리에게 깊은 연대감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녀들은 가문 재생산의 역할에서 며느리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믿을 만큼 전통에 맹목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유서 깊은 가문 양식의 유지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남검의 엘리트 동생인 남편의 정치적 지위를 위한 정신적이고 미학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부용은 ‘조선족’ 정체성은 혈통중심적 가문 재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혈통중심적 가문 재생산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다. 동시에 종손의 인공불임을 발설하지 않고도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시할머니-시어머니의 며느리 연합은 과거 자신들처럼 비가시적 노고의 담당

자가 된 부용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온전히 인공물에 불과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에 동조하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남경 가족의 우아한 괴물성은 한국사회에서 가족-가문의 집합적 단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힘의 논리를 최대치로 활용하는 데서 온다. 부용의 이야기가 문제적인 것은 그녀의 조선족 정체성이 인종주의적으로 착취당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혈통주의의 신화가 끝난 시점에서도 ‘가족’ 정체성에 부여된 사회적 권력을 작동시키기 위해 그녀의 동일민족/이방인 이중 정체성이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가족-자본’의 한국적 결합 구조를 적절히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가흠의 「쁘이이거나 쓰이이거나」(2010)에 나오는 순박한 농촌 가족은 『사랑을 묻다』의 하백당 가족과의 대조(對照) 속에서 독해해볼 만하다. 원 살이 넘은 농촌 노총각이 이십 대의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한 이 이야기는 한국형 국제 결혼의 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K-드라마로 한국에서의 유복한 삶을 상상했던 베트남 신부 쓰이는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한국의 농촌에 남겨진다. 살림도 하지 못하고 농가일에도 크게 도움되지 않은 채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쓰이와 아내의 이름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농촌 남성 시종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종은 농촌 노총각에게 숙제처럼 남겨져 있던 결혼이라는 통과의를 완수했지만 또 하나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의 동생이자 또 다른 농촌 노총각인 기종의 혼인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부채감 때문이다. 반대로 동생인 기종은 목욕 중인 쓰이의 나신을 엿담해온 행동 때문에 형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그 순박함과 촌스러움 때문에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우애 깊은 두 형제가 형과 쓰이의 결혼을 둘러싼 각자의 죄책감을 서로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리고 상상과 전혀 다른 결혼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했던 철부지 어린 신부를 이들이 붙잡아온 순간, 서사는 급격히 뒤틀리고 그로테스크한 비극으로 전개된다. 형은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상황에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동생의 결핍된 성욕을 연민하는 한편, 애정도 이해도 없이 의미를 상실한 결혼상태를 좀 더 “아깝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쓰이는 감금되고 형제에게 성적으로 공유되다가 결국 자살을 택한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장려되조차 했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기획은 농촌의 고령화와 젊은 여성의 부재 문제를 농촌 지역의 ‘빈곤화’와 ‘성비 불균형’으로 ‘수치화’하고 ‘객관화’한 분석의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객관화된’ 분석은 왜 농촌이 젊은 여성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대체했다. 농촌의 빈곤이 농촌의 기혼 여성에게 농업 노동과 돌봄 노동, 섹스 제공자의 역할을 가중시키는 가부장제 강화 이상의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구조 속에 나타난 여성 결핍을 국가 간 임금 격차를 이용한 결혼이주 여성으로 메운 것이다. 썬의 한국인 가족 형제들은 ‘알고 보니’ 순박한 얼굴 뒤에 악랄한 심성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녀들이 농촌의 지체된 가부장제에 결합된 ‘결혼상품’이었던 만큼 손쉽게 ‘본전’을 생각나게 했던 것뿐이다.

섹스와 육아, 가사노동을 겸한 성별분업화된 여성의 돌봄노동은 국가 간 임금 격차에 의해 서열화된 자본의 흐름을 따라 연쇄적으로 이월되고 있다고 평가된다.<sup>7</sup> 자본의 초국적 세계화는 단순히 탈가치적 관계를 전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강화하거나 맹목화하는 데에도 작동한다. 시대착오적인 가족주의는 자본을 타고 흘러 가난한 국가의 여성을 덮친다.

### 2.3 비대칭의 사랑, 그리고 남겨진 이방의 언어

김애란의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2009)는 결혼이주 여성이 아니라 국제결혼을 했던 한국 남성이 주인공인 서사다. 택시운전사 용대는 불법체류 저임금 노동자로 살고 있는 조선족 여성 명화와 결혼했지만 그녀는 병으로 그의 곁을 떠났다. 깊은 심성과 영리함으로 용대 자신에게 과분하게 여겨진 명화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저임금 노동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 때문에 동생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항했으나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동생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남은 빛은 떠안은 명화는 품팔이 노동을 하는 기사식당에서 용대를 만난다. 용대는 명화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에게 구혼해 결혼에 이르지만 자신에게 늘 친절하고 어질었

7 위의 글, 245-251쪽.

던 그녀가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 수 없다. 명화의 병간호로 모아놓은 적은 재산마저 없애고 단칸방에 나왔은 어느 날 용대는 병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 “너 진짜 몰랐냐.,” “그게 아니면 니가 나 같은 놈을 왜 만났겠냐.”라며 울부짖는다. 용대에게 명화의 마음이 미지의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용대와 명화를 연결한 불균등한 위치성 때문이다.

서사는 결국 명화를 사랑했던 한국인 남성 용대가 누구인가를 묻는다. 택시 운전을 하며 살고 있는 그는 젊은 날 중국집 배달, 술집 웨이터, 아파트 경비를 전전하며 사회의 주변부를 떠돌았다. 그는 영리하지도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한 실수투성이의 인물로 이런 저런 미숙련 업종을 바꿔가며 지내던 사회의 하층 계급이고, 무엇보다 보증 사기로 흠어머니의 전재산인 오래된 양옥집을 날리고 도망치듯 상경한 집안의 천덕꾸러기였다. 택시운전수인 그는 어느 날 사법고시에 패스해 검사가 된 오춘 조카를 우연히 손님으로 만나다. 가족의 수치이자 도시의 주변인인 용대와 같은 집안에서 나와 검사가 된 조카의 만남은 용대의 현재를 반추해보게끔 하는 한국의 전형적 가족 구성의 내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한다. 용대의 아버지는 무학의 농사꾼이었고 그의 노동은 조카 지훈의 할아버지가 되는 집안의 장남인 형의 학비를 지원했다. 장남의 가족이 정보력과 재력으로 손자를 기득권층으로 키운 동안, 차남의 가족은 그들의 상향심에 훨씬 못 미치는 계층사다리의 하위에 자리잡았다. 오춘 조카가 중산층인 아버지의 목동 아파트에서 장인어른이 사준 도곡동 아파트로 옮겨가는 동안 용대가 택시운전을 그만둘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진다.

따라서 자신의 희망 없는 인생에 아주 잠시 동안 희망을 상상하게 하며 끼어들었던 이방인 아내가 그에게 미지의 존재로 남고 마는 것은 결국 경제적·사회적 비대칭성 때문이다. 매매혼의 성격을 가진 국제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용대의 인생이 희망 없는 것에 비례해 그녀가 한국의 밑바닥 인생인 남성과 만난 표면적 이유는 시민권자 남편과 저임금 이주노동자 아내의 정체성 사이의 비대칭성으로 반복해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의 죽은 아내는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해볼까 하던 남편의 제안에 반색해 직접 녹음해 만들어준 중국어 회화 테이프 속에 이방의 언어로만 남아 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 그녀의 외국어 속에서 ‘그녀라는 미지’를 다시 만난다. 자신이 보낸 사랑에 대칭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인가를 의심케

하는, ‘그녀의 사랑’이라는 ‘미지의 영역’은 반복해서 듣고 되뇌어도 이해하기 힘든 외국어를 통해 그에게 재상연된다. 그는 그녀의 외국어로 하여금 그녀가 희망 없는 한국인 남성인 자신과 만나기까지 건너온 ‘이주의 거리’를 사후적으로나마 감지하는 것이다.

용대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기대하기 마련인 성공적인 남성성을 얻는 데 철저히 실패한 인물이다. 그리고 명화의 발명으로 근면성실한 ‘다문화’ 가족으로서 한국 사회에 비로소 재수용되는 귀결을 맺지 못한다. 그런데 용대가 명화와 꿈꿨던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의해 명화는 조선족 출신의 저임금 노동자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에 성공한 여성이라는 규정성으로부터 분리된다. 즉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는 용대의 실패한 남성성이 명화의 이방인 정체성에 의해 보완되는 서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서사는 용대가 명화의 부재와 관계맺는 방식을 보여준다. 용대의 사랑이 가진 핵심은 명화와 함께 희망을 꿈꿨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끝내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버린 그녀가 부재한 상황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용대는 그녀가 자신을 이용한 불법체류자였는지도 모른다는, 이제는 답해질 수 없는 질문과 함께 남는다. 그는 명화가 녹음한 중국어 회화 테이프를 매일 들으며 ‘한국에 온 조선족 여성’이 되기 이전에 그녀를 구성하고 있던 ‘다른 세계’에 접근하는 중이다. 사후에도 종료되지 못하고 이어지는 그의 접근이 실패한 한국인 남성과 가난한 조선족 여성의 결합에 부속된 전형적 기대를 해체할 가능성을 연다.

### 3 내부 식민자로서의 한국 여성의 재현과 ‘K-가족주의’

최근 한국문학의 가장 뚜렷한 현상은 여성 서사의 부상과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 여성 독자들의 지지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중후반 한국문단을 점령한 이슈는 ‘미투#MeToo’ 운동이었다. 남성 작가들의 성폭력이 연쇄적으로 고발되고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폭발하면서 한국문단에서 ‘여성’은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게 된다. 이 시기 페미니즘 대중화 현상을 주도했던 작품은 단연 『82년생 김지영』이다. 『82년생 김지영』은 여성 대중 독자들에게 이례적인 독서 붐을 일으키며 하나의 ‘현상’이 되었으며 남성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페미니즘

지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까지 자리잡았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201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 문학의 붐이 시작된 시점과 앞에서 다룬 결혼이주 서사가 다수 등장했다가 서서히 줄어든 시점이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인종적·젠더적 소수자들에게 주목하며 확대되었던 결혼이주 서사는 결혼이주 문제의 초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복합화되고 분산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 내 인종 문제는 해외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존하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주민들의 수가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 한국의 글로벌한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 내의 이주민 문제는 사회 전체의 공통 의제로서 본격적으로 인식되는데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내 이주민 문제는 이주민 규모의 확대와 함께 오히려 섹트화되고 고립된 양상을 띠면서 한국사회의 글로벌한 성격을 이중적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 발생한 이러한 교차가 주목되는 것은 『82년생 김지영』과 여성 독자들이 다소 퇴행적으로 여겨질 만큼 뒤늦게 ‘여성’을 한국 사회의 ‘내부 식민자’로서 다시금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영은 가족과 사회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성별분업화된 비가시적 돌봄노동의 희생자를 대표한다. 자기 목소리를 잃은 채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다른 낯을 빌려야만 하는 이 익명화된 존재는 남성이자 합리적 권위의 대표자인 의사에 의해 병리성을 진단받게 되는 전형적인 내부 식민자로 재현된다. 그러나 한국문학은 이미 199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 서사의 폭증과 주도권의 젠더적 이동을 경험한 바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문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재현 영역 안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문단은 2010년대 중후반 등장한 『82년생 김지영』의 전형적인 여성 재현과 이에 대한 대중 독자의 이례적인 지지에 서로 논쟁적인 견해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sup>8</sup>

---

8 김미정, 「흔들리는 재현·대외의 시간」, 『움직이는 별자리들』, 갈무리, 2019; 소영현, 「거대한 침묵 앞에서」, 『82년생 김지영: 코멘터리 에디션』, 민음사, 2018; 오길영, 「페미니즘 소설의 몇 가지 양상」, 『황해문화』 제98호, 새얼문화재단, 2018; 오혜진, 「‘이야기꾼’의 젠더와 페미니즘 리부트」,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조강석, 「메시지의 전경화와 소설의 ‘실효성」, 웹진 문장, 2017; 조연정, 「문학의 미래보다 현실의 우리를」, 『82년생 김지영: 코멘터리 에디션』, 민음사, 2018; 허운, 「광장의 페미니즘과 광장의

주로 2000년대 중후반에 쓰인 결혼이주 서사들은 1990년대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여성 서사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이주의 여성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소외를 ‘연대(連帶)’의 관점으로 포착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보다 경제적 불평등을 전제한—나아가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결혼이주 과정은 가정 내 돌봄노동으로 대표되는 여성의 비가시적 노동을 은폐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82년생 김지영』은 국가 간 임금 격차에 의해 이월(移越)되고 있는 이 비가시적이고 젠더화된 노동이 사실상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얼마나 변함없이 존속해오고 있는가에 대한 내부고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시피 『82년생 김지영』은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문제적 지위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전형화하는 작품이다. 오히려 여러 논자들의 지적처럼 『82년생 김지영』의 손쉬운 피해자 서사로 페미니즘의 연성화(軟性化) 현상이 나타났다. 『82년생 김지영』 현상의 역설이란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대항 언어를 구심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 바로 ‘무구한 피해자’라는 여성 이미지를 여성 독자들이 부담없이 공유하도록 한 효과였다는 점이다.<sup>9</sup>

당연히 이 ‘무구한 피해자’라는 여성 이미지는 시대착오적이다. 한국사회는 사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여성의 자기 욕망의 언어적 현시를 촉구한 페미니즘 운동의 대중화를 일찌감치 경험하고 있었다. ‘IMF 이후’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로의 전방위적 전환의 감각 속에서 무한한 자기계발의 논리는 여성의 성공 스토리와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으로 재구성된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자원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극대화되기 시작했던 때였다. 구조조정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차별화는 학벌 체계, 그리고 가부장제적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 9 『82년생 김지영』의 김지영이 가진 ‘무고하고 평균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이성에 중심적 성 체계에 머무르며 ‘다원적 주체’에 대한 상상을 결락하고 있는 정치적 뭉툭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앞의 글 참고; 『82년생 김지영』이 일종의 감상소설 구조로 여성독자에게 손쉬운 동일시를 유도한 효과가 이 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기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운, 앞의 글 참고.



가족이라는 젠더 체계 같은 기존 질서와 손쉽게 맞물렸다. 그러나 임금과 고용에서의 성차별이 상당히 분명한 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되지 못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었던 것이 ‘여성 소비자’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 사람의 생애사를 개인의 자기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자원 확보와 그 결과로 환원하는 ‘자기계발’의 세계에서 여성들의 인정투쟁은 평등한 경제권에 대한 추구를 제한받은 채 소비주의를 통해 발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sup>10</sup> ‘된장녀’와 ‘경단녀’는 동일한 조건에서 태어나 반대방향으로 뻗어나간 여성 담론의 두 축을 표상한다.

그 결과 여성들의 자기계발은 갱신된 가부장제와의 재결속되는 흐름을 만들기도 했다. 여성들이 지속적인 자기 자원화 대상으로 만드는 데 실패한 학벌은 이제 ‘가족’이라는 경제 공동체 안에서 재생산된다. 한국사회의 계층사다리를 만드는 핵심 구성 인자인 학벌은 이제 ‘가족’ 단위로 ‘경영’되는데, 이는 엄마의 자녀 교육 관리 업무로 성별분업화되고 고도화되었다. 청년 남성들 사이에 증폭되었던 여성혐오의 저간에 가정과 학교의 관리 시스템에서 억압적으로 체험된 젠더 규준이 문제적으로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페미니즘 붐이 증대하고 있던 것은 무엇보다 청년 남성들의 여성혐오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지영’과 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21세기 한국 여성이 가족 내 돌봄노동자로 남았다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sup>11</sup> 그러나 여성의 정체성 정치가 뒤늦게 ‘무구한 피해자’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자기 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한국 여성들이 새로운 한국의 가부장제적 가족주의의 인력에 끌려들어간

10 신자유주의 시대 자기계발 서사가 만들어낸 기업가적 주체와 여성 주체 사이의 간극 속에서 여성의 자아 기획이 이중적인 양상을 띠고 여성 ‘속물’ 주체를 양산하는 과정을 드러냈다는 지적에는 엄혜진, 「신자유주의 여성 자아 기획의 이중성과 속물의 탄생」, 『한국여성학』 제32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6 참고.

11 『82년생 김지영』을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자기계발 서사가 강조했던 여성성의 소비주의적 구성이 이제 작동불가능한 상태의 곤경을 드러낸 텍스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엄혜진, 「여성의 자기계발과 페미니즘의 불안한 결속」,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참고.

채 한동안 스스로를 맹목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이러한 맹목화가 상당기간 작동한 것에는 여성의 신자본주의적 적응이 성별분업을 고착화한 한국의 가족주의로 흡수되었다는 것 외에도, 한국의 자본력이 초국화되면서 ‘K-컬처’, ‘K-라이프스타일’이 한국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해버릴 만큼 성공적으로 확산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sup>12</sup>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는 정치적·문화적 담론을 통해 재구성된다기보다 ‘K-’ 합성어가 분절해내는 문화상품을 통해 대리표상되고 있다. ‘K-’ 합성어에 의해 분절화되어 재현되는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비판적 구심점을 점점 난포착하도록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우려되는 점은 『82년생 김지영』이 대표했던 여성 서사의 ‘내부 고발’이 한국 가족주의의 내적 모순을 비로소 정확하게 짚어낸 대중적 운동의 시발점이 아니라 초국화한 자본의 흐름 속에 있는 자기 위치에 대해 무지각한 상태로 자기피해 서사에 스스로를 가두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일 것이다. 2000년대 중후반 국경을 넘은 여성들에게 보냈던 연대의 눈길이 분산되었던 시점에 등장해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서사가 한국 여성의 ‘전형적 삶’을 다시금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계급과 인종 문제로 이미 복잡화되어 있는 기존의 맥락을 제거하고 있는 것에 의심스러운 시선이 닿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지영’과 같은 인물이 신자유주의 가부장제 안에서 이중적인 지위—가족의 지위 상승과 여성의 지위 없음—를 가진 채 만들어나갔던 삶이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저임금 노동 대체나 결혼이주 여성의 농촌사회로의 투입과 무관할 것일 수 없다.

그렇다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82년생 김지영』이 동아시아 내에서 거둔 국제적인 성공이다. 『82년생 김지영』은 일본어와 중국어 판본으로 번역되어 독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일본과 중국의 페미니즘 운동의 대중적 확산에도 영향을 끼쳤다. 말하자면 『82년생 김지영』은 ‘K-컬처’ 목록에

---

12 예를 들어, ‘K-엔터테인먼트’의 초국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트러블과 젠더적 상관성에 대해서는 류진희, 「젠더화된 메타서사로서 한류, 혹은 ‘K-엔터테인먼트’ 비판」,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참고.

추구된 또 하나의 성공 사례이자 페미니즘 정치의 새로운 국제적 연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재일조선인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는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 일본의 경우에서도 확인되지만 『82년생 김지영』이 가진 페미니즘 대중 정치의 기폭제적 역할은 그것의 ‘적절한 수용성’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sup>13</sup> 매우 단적으로 말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정체성 정치의 뚜렷하고 명료한 자기 정체화 기제가, 감정선과 긴장도가 적절히 안배된 한국형 드라마타이즈를 거쳐, 동아시아에서 공감하기 쉽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은 여성 이미지를 생산·수출한 셈이다.

초국화한 자본이 한국사회를 점점 더 다인종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한국’의 이미지는 이주노동자들을 포용한 시민사회를 상상하는 대신 ‘다문화 가족’으로 환유(換喻)되고 있다. 『82년생 김지영』 현상을 일으킬 만큼 골이 깊은 균열을 내장하고 있는 ‘K-가족주의’가 다인종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재구성에 핵심 질료로 또 다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주 서사들이 드러내고 있듯 가족은 가장 확실한 사회 동화(同化)의 기제가 아니며, 『82년생 김지영』이 다시 환기시키듯 자본주의 질서를 젠더 규준에 속박시키는 방식으로 ‘개인’의 내용을 한정시킨다. ‘K-컬처’의 경쟁력이 국경을 넘으며 강화되는 인종-계급-젠더 문제를 지우는 방식으로 동아시아적 페미니즘 판본을 유통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운동의 집합적 역능이 커지는 만큼 새로운 가능성이 분기(分歧)할 여지도 커진다. ‘K-컬처’의 영향력이 외부의 시선과 만나 한국사회의 내적 모순을 자극할 계기적 순간의 가능성들을 기대해본다.

#### 4 나가며

한국의 가부장제라는 권력 기제는 단순히 동일한 모습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사회의 경제 자원을 재

13 일본에서 『82년생 김지영』 일으킨 젠더 감수성의 부상이 사실상 재일조선인 여성문학이나 일본인 위안부 문제 등과는 전혀 정치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신지영, 「트랜스내셔널 여성문학의 공백」,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참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차별적 기제를 재활용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보상을 가정 관리의 성공 여부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가부장제는 불변하는 성차별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보상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판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주되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20여 년간 개인의 지위 상승은 교육과 부동산에 의한 가정 내 투자에 의존해 있다는 믿음으로 지탱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을 단순한 피해자로서 동일하게 뭉뚱그려버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그보다는 성차별에 대한, 갑작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확대된 일반적 수준의 자각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작동의 한계 지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젠더 갈등은 입시 중심 경쟁 교육과 부동산 투자 문제가 공히 한계에 이른 시점과 동시에 맞물려 있다.

이 과정의 앞자리에 젠더화되고 있는 글로벌한 이주가 증폭되었고 한국은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 되는 동시에 결혼이주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인 사회가 되었다.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두터운 노동인구층이 되었지만, 여성의 가정 내 돌봄노동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사회 구성과 기여는 비가시화되었다. 『82년생 김지영』은 분명 동아시아의 페미니즘 연대를 추동했다. 그러나 ‘김지영’ 이미지의 보편적인 수용성이 젠더 문제에서 계급이나 인종 문제 같은 복합 요인을 지운 데서 얻어지고 있다는 역설에 대해서도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김애란,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2009), 『비행운』, 문학과지성사, 2012.  
 백가흠, 「뽀이이거나 썸이이거나」(2010), 『힌트는 도련님』, 문학과지성사, 2011.  
 송은일, 『사랑을 묻다』, 대교북스캔, 2008.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천운영, 『잘 가라, 서커스』, 문학동네, 2005.

## 단행본

김민정, 『이주 시대의 젠더』, 집문당, 2020, 35-36쪽.

## 논문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재현 양상」,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1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기술원, 2011, 171-191쪽.

김미정, 「흔들리는 재현·대의의 시간」, 『움직이는 별자리들』, 갈무리, 2019, 49-82쪽.

류진희, 「젠더화된 메타서사로서 한류, 혹은 ‘K-엔터테인먼트’ 비판」,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9-37쪽.

박정애, 「2000년대 한국소설에서 다문화 가족의 성별적 재현 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93-121쪽.

배옥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장소 정체성 상실: 공선옥의 「가리봉 연가」를 중심으로」, 『젠더와문화』 제6권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3, 149-175쪽.

서성란, 「한국 현대소설에 형상화된 결혼이주 여성」, 『한국문예창작』 제12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3, 245-269쪽.

소영현, 「거대한 침묵 앞에서」, 『82년생 김지영: 코멘터리 에디션』, 민음사, 2018, 83-96쪽.

송명희, 「다문화 소설 속에 재현된 결혼이주 여성—공선옥의 「가리봉 연가」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25권,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1, 133-135쪽.

신지영, 「트랜스내셔널 여성문학의 공백」,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87-133쪽.

심영의, 「다문화소설의 유목적 주체성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2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3, 147-174쪽.

엄미옥, 「현대소설에 나타난 이주여성의 재현 양상」,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54-390쪽.

엄혜진, 「신자유주의 여성 자아 기획의 이중성과 속물의 탄생」, 『한국여성학』 제32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6, 31-69쪽.

- \_\_\_\_\_, 「여성의 자기계발과 페미니즘의 불안한 결속」, 『아시아여성연구』 제 60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121-162쪽.
- 연남경, 「여성 이주 소설의 기호학적 분석-결혼이주여성 인물과 공간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40권, 한국기호학회, 2014, 165-188쪽.
- 오길영, 「페미니즘 소설의 몇 가지 양상」, 『황해문화』 제98호, 새얼문화재단, 2018, 335-346쪽.
- 오혜진, 「'이야기꾼'의 젠더와 페미니즘 리부트」,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40-376쪽.
- 이경재, 「결혼이주여성 제재 소설의 문화변용 양상에 따른 유형 분류」, 『한국현대 문학연구』 제46호, 한국현대문학회, 2015, 413-441쪽.
- 이미립, 「2000년대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 이주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제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645-672쪽.
- 이지영, 「국제이주와 여성」, 『4차 산업혁명론의 국제정치학: 주요국의 담론과 전략, 제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233-268쪽.
- 임지연, 「결혼이주 여성의 몸과 교차적 정치성」, 『겨레어문학』 제62권, 겨레어문학회 2019, 127-156쪽.
- 장미영, 「디아스포라문학과 트랜스내셔널리즘 (1)」, 『비평문학』 제38권, 한국비평문학회, 2010, 442-460쪽.
- 조강석, 「메시지의 전경화와 소설의 '실효성」, 웹진 문장, 2017.
- 조연정, 「문학의 미래보다 현실의 우리를」, 『82년생 김지영: 코멘터리 에디션』, 민음사, 2018, 59-82쪽.
-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광장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123-151쪽.

## Abstract

Problematizing the “K” Prefix

: Marriage Mmigration Narratives, Kim Jiyoung, born 1982, and Korean Familialism

Marriage migration narratives first began appearing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in the latter half of 2000s, and they were understood to be a form of women's narrative that was inherited from writers working in the 1990s. These narratives of marriage migration reflected an increase in migration, which was transforming Korea into a somewhat multi-racial society. Moreover, it reveals that the issue of migration in Korean society possessed a distinctly gendered component. This is because the recognition of emigrants as civilians occurred mainly in the form of recognizing families composed of a Korean native and foreign spouse. Therefore, it can be deduced that the ideology of familialism conceals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care work is gradually being shifted to low-wage female workers from less-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 novel *Kim Jiyoung, born 1982*, which was at the center of the "feminism reboot" phenomenon in Sou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in the mid-2010s, re-popularized a female image free from the problems of class and race at a time when marriage migration narratives were gradually losing prominence.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success of *Kim Jiyoung, born 1982* reflects the fact the combined patriarchal and neoliberal system of Korean society, which limits the social role of women to being consumers and mothers who direct their children's education to maintain the family's social status, was no longer sustainable due to neoliberalism losing its hegemonic status.

Key words: Marriage-emigration Narrative, Multi-cultural, "Feminism Reboot", *Good-bye, Circus, What is Love?, Puy, Thuy, Whatever, There, at Night and a Song of Here, Kim Jiyoung, Born 1982*, Korean Familialism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